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12

Dec. 2015
Vol.3 No.12

- 성탄감사예배
- 교육부 행사
- 사역국 소식
- 간증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작은 나눔, 큰 기쁨 Merry Christmas!



■ 멕시코 일일선교

크리스마스를 티화나 이웃들과 함께

지난 12월 25일(금요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멕시코 일일 선교팀과 동행하였다.

새벽별이 가득한 아직은 어둠이 짙은 4시 45분경 집을 출발해 교회에 5시 15분 도착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나와 길을 떠날 준비를 한참하고 있었다. 부엌에선 선교팀의 간단한 아침과 선교지역 식구를 대접할 점심, 그리고 추운 날씨를 녹여줄 따뜻한 우영차까지 이분들의 섬김은 어디까지일지 감사할 따름이었다.

정확히 6시 교회에서 출발, Aliso 휴게소에서 세리토스채플과 만

나 미리 준비한 김밥과 따뜻한 차를 나눠 먹는 팀멤버의 얼굴이 살짝 상기된 듯 느낀건 내 마음 탓일런지.

얼마 안가 국경을 넘어가니 거리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50년대 혹은 60년대와 비슷한 판자집들과 비포장도로.. 사람들의 차림새조차.. 갑자기 나의 수고함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됐다.

<5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 성탄절 양로병원 방문

지난 12월 16일 이재조전도사의 인도로 10명의 '주안예교회 양로원심방팀'은 5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교회 인근 양로원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 9시경 Northridge Care Center, 그리고 오후에는 Balboa Care Center를 찾아 200여명의 노인들을 위로했다.

각 센터별로 100여명씩의 장애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안예교회 심방팀의 방문을 받고 큰 기쁨과 위로의 눈물과 감동을 받았다.

이재조 전도사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된 예배, 그리고 오병순 집사의 인도로 예수사랑 하심은 찬양과 Amazing Grace 를 함께 부르며 저들은 진정 예수님이 왜 이땅에 오셨는지 그 큰 복음을 듣게 되었다.

여러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의 특별헌금으로 준비한 양말, 목도리, 그리고 과일과 과자등 선물을 받아든 저들의 미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주고 또 받았다.

둘째날도 헌팅턴 양로병원을 찾아 같은 사역을 계속 했으며 저들은 큰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내년에도 꼭 다시 오라고 작별 인사했다. 우리 심방팀은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전도했다. | 오병순 기자 |

■ 성탄감사예배



첫번 크리스마스의 그 감동으로 "영광을 예수님께"

12월 25일(금요일) 성탄절에 앞서 지난 12/20/15(주일) 성탄감사예배가 벨리채플과 세리토스 채플에서 아름답게 드려졌다. 대통령이 나서서 'Merry Christmas' 를 자제시키고, 'Happy Holiday' 를 외치는 세상에 어김없이 우리를 위해 낫디낫은 자리로 찾아오신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죄 많은 우리,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달동안 정성을 들여 준비한 예배가 시작됐다. 예수 탄생이 없었다면 죄 가운데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 우리를 누가, 무엇이 구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 최대의 선물이니 확실하다.

아직 자아상이 완성되지 않는 초등부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청춘을 주 안에서 불태우는 청년까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구주오심에 감사를 드리는 행복한 예배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쇼

핑클 중앙에 앉아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사진을 찍어주는 산타할아버지보다 못하지는 않은지 생각해본다.

그러나 주안에 교회에는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있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에 힘입어 나를 세우고 내가정을 세워 내가 속한 사회에 작은 촛불 하나가 되고자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한다.

어린 만큼 순전한 필리는 마음으로 대표기도를 한 문 사무엘, 김하윤어린이에게 오늘의 성탄예배가 인생의 큰 빛이 되어줄 것이다.

임마누엘 성가대와 마하나임 성가대는 "주의 영광", "사랑의 왕, 거룩한 성"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코람데오 한어청년부는 "Wake"라는 가스펠에 맞춰 온몸으로 찬양하며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다. 또한 ICY 중고등부 학생들의 드릴 물질은 없지만 온 마음을 다해 복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한 "Little Drummer Boy"공연은 울리는 복소리와 함께 우리의 심장도 뛰게 했다.

마지막으로 최혁 담임목사는 "별"이란 주제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어떤 별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셨다.

성탄절이면 항상 입에 오르내리는 성경구절이었지만 별의 입장에서 보니 또다른 메시지가 있었다. 동방박사의 눈에 들어온 빛나는 별, 세상을 향해 빛나야 하는 우리, 그 밝은 빛은 자연스레 세상을 이끌 것이다. 우리가 그러해야 하듯.. 별은 태양이 아니었다. 별은 새벽이 오면 사라지듯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 빛이 소리없이 사라졌듯이 우리도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사라질 줄 아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다짐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탄예배는 끝이 났지만 세상을 향해 나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성탄 주간이 시작되었다.

어둠이 깊을 수록 작은 불빛이 그 존재감을 높이듯 우리도 어둠이 깊어지는 세상 속에서 향기를 품은 진정한 별빛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한다. 샬롬.

| 채은영 기자 |

■ LA 예배처소 특별새벽기도

주안예교회 LA채플 설립을 위한 특별새벽기도를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동안 LA 다운타운 소재 예배처소에서 은혜와 열정 가운데 마쳤다.

첫주간은 최혁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신 후 그룹 합심기도와 개인 기도를 통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가졌다.

LA 일원에 거주하는 교인들과 타지역에 살지만 LA에 직장이 있는 교인들이 주로 참여하였는데 70명까지 모이는 열정에 힘입어 특별새벽기도회를 1주간 더 연장했다.

한편 12월 28일부터 1주간 주안예교회 2개 채플과 LA예배처소에서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동시에 갖게되며 2016년 1월 10일, 둘째주부터 LA예배처소 주일예배가 시작된다. 1515 S. Santa Fe Ave., Los Angeles, CA 90021에서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회



를 갖게 된다.

주안예교회 LA채플의 설립과 순조로운 공사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나형철 기자 |

■ 리더뱅크



함께 달려온 한 해, 감사와 격려로 가득

지난 12월 8일 저녁 7시 가든스윛호텔에서 리더뱅크가 있었다. 2백명이 넘는 주안예교회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물어가는 2015년을 회상하며 함께 행복했던 시간들을 나누었다.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다양한 사람 사람이 모여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빠 뛰고 달리는 일상에서 한발자국 빠져나와 이 시간을 위해 black & white으로 치장을 하며 신선한 호흡을 했을 것이다. 부부끼리, 친구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앉기도 하고 두채플에서 모여 어찌면 좀 낯선 성도들과도 쉽게 마음을 열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맛있는 음식은 쉬 등이 나버렸지만 오병이 어의 기억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일터에서 뒤늦게 함유한 분들에게도 여기저기서 접시를 채워주었다.

이규화, 이성우 전도사의 명랑하고 쾌활한 진행은 리더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주안예교회 비공식 가수 오병순, 윤영섭 집사의 "순이와 섭이"의 찬양을 시작으로 박선우, 박성원 집사의 듀엣으로 "해같이 빛나리"를 불러 리더로서 뛰고 달린 충성되고자 애써 달려온 1년을 되돌아보게 했다.

빠질 수 없는 순서 김정혜 권사, 김용수 장로, 조성운 집사 마지막으로 최우리 자매의 간증은 생김새 만큼이나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찬양한 간증의 시간이었다.

세션팀과 오병순 집사의 "사명"이란 찬양의 가사 한소절 한소절에 우리의 다짐과 고백을 담아 2016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뛰고 달릴 마음의 준비를 했다. 목격한 바라크 남성 중창단과 복사중창팀의 찬양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었다. 언제나처럼 최고의 하이라이트, 교역자이나 내 친구처럼 유쾌한 모습으로 보여준 재치넘치는 콩트는 리더들의 잔주를 하나를 퍼주었다.

최혁 담임목사는 지난 1년 우리가 알고 있

던 혹은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주안예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마음편에 새롭게 기록하게 하였다. 혼자 뛰고 달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지만 돌아보면 역시 2015년도 내가 흐트러트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다듬으시고 견어내시며 내 앞길을 열어주셨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야 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를 낮추게 하는 시간이었다. 혼자가 아니어서 가능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오늘의 주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남을 고백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연합되길 바라듯 성도와 성도의 마음도 하나되길 기도하며 뱅킷을 마무리하였다.

| 채은영 기자 |

■ 성가대 연합송년모임(밸리채플)

지난 11월 29일 오후 4시, 장기연 성가대 국장 집에서 2015년 주안예교회 밸리채플의 성가대 합동 송년 파티가 있었다.

2016년 임마누엘 성가대의 새 총무로 선출된 안덕문 집사의 사회와 정도영 장로의 지휘로 남성 중창단은 준비된 "I love you Lord" 찬양을 울려드려 참석한 50여명의 대원과 가족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황의석 장로의 기도 후 저녁 시간에는 항상 교인들에게 풍성한 음식으로 베풀기를 기



하는 장기연 장로, 장혜덕 권사 그리고 많은 성가대 대원들의 손으로 준비된 만찬으로 성

가대원과 참석한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성가대원 한사람 한사람 그리고 함께한 가족들의 소개가 있었다. 많은 대원들의 재치 있는 자기 소개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움을 주었고, 진솔한 자기 소개는 함께 찬양하면서도 서먹했던 대원들을 주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 기도 동반자로 다시 만나게 해 주었다.

아쉬운 시간을 뒤로 2016년 귀한 섬김과 봉사를 약속하며 2015년 합동 송년회는 막을 내렸다.

| 박창신 기자 |

■ 멕시코 일일선교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돌아올 땐 힐링의 기쁨이

〈멕시코 일일선교 1면서 계속〉

선교지역인 데카테에 들어서자 함께 동행한 아이들의 놀란 눈빛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실을 실감했다. 간신히 바람을 막아줄 판자집에는 수도도 전기도 공급되지 않았다. 교회는 자가 발전기로 예배당을 밝혔고 그곳에 있는 내내 손조차 닦을 수 없었다. 멀리 까말루 지역에서 장거리 운전을 마다치 않고 동참한 선교센타 지원팀 학생부의 찬양과 율동 등으로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눴다.

예배 후 점심으로 공급된 햄버거는 사람 수의 세 배 이상이 나왔다. 고사리만한 아이들 손에는 식사가 담긴 백이 서너개씩 들려 있었고 장난감과 악세사리, 손톱에 깎 때를 가려줄 네일아트는 인기가 만점이었다고 예쁘게 face painting을 한 아이들의 얼굴은 놀이동산에서 마주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멕시코로 일일선교를 가자는 말에 엄마도 모르게 자신의 옷장에서 옷을 가방 하나 가득 담아와 비슷한 체구의 또래들에게 나눠주며

깊은 감사와 웬지 모를 미안함에 아이의 마음이 잠깐 복잡해지기도 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하루 시작을 열시나 되어야 한다고 한다. 10시쯤 일어서 2시경 첫끼이자 마지막이 되기도 하는 식사를 한다고 한다. 아이들은 거의 학교도 가지 않는다. 가난이 가난을 부르는 이유를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하고 내가 왜 더욱 열심히 내 삶을 즐기며 동시에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섬김이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탈렌트 김혜자씨는 아프리카 선교를 지난 25년동안 꾸준히 해 온 연에게 대표 크리스찬이다. 그분은 예능프로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다면 이 유여하를 막론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걸 본적이 있다. 그곳에 가면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상한 심령을 치유받겠다고 말한다. 그 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자신이 씨름했던 그 모든 생각이 쓰레기였다는 걸 깨닫는다고 꼭 한번 같이 가자고 했었다.

오늘에서야 나는 그분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생각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함박웃음을 웃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행복하지만 쓸쓸한 눈빛, 집에 있는 가족이 눈에 밟혀 무안하거나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두세번 줄을 쓰는 꼬맹이까지..

멕시코로 출발할 때 살짝 설레임이 있었다면 돌아오는 길에는 비록 일찍 시작한 하루의 피곤이 밀려왔지만 마음은 큰 부자가 되었다. 나눔이 주는 힐링, 자각하지 못한 손에 쥐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 나눌 수 있는 물질 그보다 더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주는 백배의 기쁨까지..

맛있는 숨은 맛집 하나를 찾아도 금새 입소문을 내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으로 구원받고 천국시민이 되었으니 만사를 제치고 나서도 부족하다 하겠다. 지금 이순간 바로 여기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뭇듯이 기뻐하고 모든 걸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하며 지는 노을을 뒤로 하고 국경을 넘어 왔다.

■ 체육국 리더모임

2016년을 위한 체육국 리더모임이 지난 12월 11일(금) 오후 5시 오성택 체육국장 댁에서 열렸다.

축구, 야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 골프 등 6개 팀으로 이루어진 체육국은 활발한 운동모임을 통해 서로의 교류는 물론 “체력이 건강해야 신앙도 건강하다”라는 신념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로 발족한 족구팀은 2016년도 벨리지역 우승을 목표로 10여명의 회원들이



매주 월요일저녁 맨연습을 하고 있으며, 오철호집사가 감독으로 활동하는 야구팀은 LA한

인리그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축구팀도 토너먼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골프팀은 두번의 토너먼트 행사를 통해 기금을 마련, 청년부와 교육부를 섬길 것을 목표로 했다.

오성택 국장은 2016년도에는 체육국이 더욱 발전하여 새로운 종목의 많은 팀들이 새로 생겨나기를 희망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원하는 팀에 적극 참여하실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에는 등산팀을 체육국에 편입하자는 의견 등, 점점 확장되어가고 든든히 서가는 주안예교회 체육국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문의〉 오성택 국장: 213-700-3377

■ 교육부 연말 모임

교사·스텝들 사명 새롭게

교육부 연말모임을 지난 12월 13일 오후에 교육부 국장님으로 계신 공태용 집사님택에서 가졌다. 부슬부슬 정말 오랫동안 내린 겨울비가 내린 가운데도 스텝을 비롯한 교사, 그리고 내년에 새로 헌신하실 신입 교사분들도 모두 함께 했던 자리였다.

각 가정별로 한가지씩 정성껏 준비한 선물 꾸러미를 한 쪽 구석에 곱게 쌓아놓고 안주인되신 공집사님이 마련한 저녁만찬을 맛있게, 감사히 먹으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다.

"때론 지치기도 했고, 때론 힘들때도 있었고, 때론 주저앉아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교회안같은 공동체안에서 우린 예수그리스도의 지체였기에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라고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어떤 집사님



이 말씀 하셨다.

식사가 끝난뒤에는 열띤 관심과 흥분속에 각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을 번호표를 받고 순서대로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선물을 고르는 모든 분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였다. 역시 선물이라는것은 크고 작

고 값싸고 값비싼 것을 떠나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이후에는 내년에 계획된 교육부의 사역방향과 일정, 새로 들어와서 헌신하실 교사 소개 등을 끝으로 교육부 연말모임을 마쳤다.

| 박희정 기자 |

■ 교육부 성탄 뱅킷

동심들 예수님 생일 축하

성탄절을 앞 둔 12월 20일에 IC KIDZ Room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바로 크리스마스 뱅킷이었다. 어린이 연합에 배 (IC JOY, IC NOW & IC POWER)로 드러진 이 날,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집에서 손수 그림을 그려서 정성껏 만든 성탄절 카드를 가지고 와 예수님께 드렸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아이들 각자의 카드에 담긴 주님을 향한 절절한 내용의 리브레타가 가슴 뭉클한 주일 하루였다.

잠시후 이어진 어린이 찬양 악기팀과 어른 핸드벨 팀 합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과 "복치는 소년"을 들으며 아이들 예배의 감동



은 이어졌다.

도네이션 된 점심식사 (파스타 외)를 맛있게 먹으며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옆방 (IC JOY ROOM)에 마련된 달란트 시장에서 아이들은 그 동안 고이 저축해 놓았던 달란트 (종이돈)를 가지고 즐겁게 쇼핑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돌아온다.

단지 아이들에게도 크리스마스가 빅 할리데이로써 평소 갖고 싶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좋은날이 아니라 이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예수로 인해 더 기쁘고 좋은 감사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

| 박희정 기자 |

ICY RETREAT 12/27-30

LIVING WATER

JOHN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 어린이 예배자 학교 첫학기 마치고...



■ 성탄벙커



“주안에” 2016년 1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김신실, 라형철, 박창신, 박희정, 안경숙, 안덕문, 오병순, 오희경, 이광영, 이하나,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 성경통독 '주안에말씀' 간증

한국방문 중에도 진도 맞춰... 감사 충만



배미경 집사

먼저 무사히 주안에 말씀 성경통독을 은혜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성경통독반에 등록을 해야지 하는 마음은 계속 갖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바쁜 일이 많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역의 어느 집사님이 자기도 성경통독반에 등록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가 싫다고 하시며 내가 같이하면 하시겠다고 하셔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그 집사님은 전화로 자기는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빠지시겠다고 하더군요. 대략 난감한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내가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머뭇거리니 강권적으로 등록시키셨음이라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경통독반 첫 모임에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안에 말씀 기간 중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끊임없이 바쁜 일이 생겨 말씀에 집중하는것을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성경통독 기간 중 한국의 친정 아버지의 위독하시다는 급한 소식에 놀라 한국방문을 하면서도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하였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친정 아버지도 잘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도 회복시켜 주셨으며 시차 적응

하느라 잠이 안올때면 성경을 읽게 하셔서 뒤쳐지지 않게 하시고 조용한 시간에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늘 부족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성경말씀을 읽다보니 어느 부분은 자주 읽어서 말씀이 익숙하였지만 어느 부분은 정말 생소하여 처음 보는듯한 말씀에 놀랐습니다. 특히 와 닿았던 말씀은 전도서와 호세아서였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와 닿았으며 호세아서는 정말 처음 읽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 하면서 놀랐습니다. 아하 이래서 성경통독이 필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다보면 시편, 잠언같은 좋아하는 말씀만 늘 읽게되는 편식을 하게되는데 이렇게 전체 성경통독을 하게되니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이 우상숭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책망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지 못하고 며칠 몰아서 말씀을 읽었으며 기쁜 마음으로 읽기보다 숙제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주안에 말씀 3개월이 처음에는 긴 것 같았으나 어느새 끝나가고 있으며 좀 더 열심히 성실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경통독반에서 3개월간 함께 한 성도님들의 서로 무언의 격려와 맛있는 간식도 주안에 말씀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희 통독반을 잘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장로님께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틈만 나면 성경 펴기... 하나님 주신 마음



문병훈 형제

처음에 주안에 말씀 통독반이 열린다는 광고를 봤을 때 나는 전혀 내가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우연찮게 벨리에서의 전도사님과 식사자리에서 벨리에 온김에 말씀통독 사인하고 가라는 얘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사인하고 나왔다. 나도 어디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또 한 편으로는 18주 동안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지는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청년부 안에서도 통독할 기회가 있었는데 출애굽기에서 항상 포기했다.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이 우선이라고 우리는 항상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곤 하는데 나는 머리로는 말씀을 봐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길 수 없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통독을 시작하면서 나의 삶이 말씀위주로 돌아가야 했다. 무슨 약속이 있던간에 집에 와서 숙제를 해야만 했고 여의치 않게 밀리는 날에는 다음날 자기전까지 말씀을 통독해야 했다. 통독을 하게 되면서 한가지 버릇이 생긴 것은 일할 때 시간이 남으면 틈틈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휴식시간에도 성경을 보는 일이 많아졌다. 일을 하다가도 안풀리는 일이 있거나 혹은 시험드는 사건이 있을때는 말씀이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눈과 목이 아플 때도 있는데 말씀을 보고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아픔을 이길 수 있었다. 가끔은 통독이 너무나 힘들어 성경책을

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성경을 보는 날에는 평소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역사적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내가 몰랐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느낌이였다. 기나긴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4대 복음서에 들어가면서 각 복음서마다 표현한 예수님이 달랐는데 내가 몰랐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의 삶에서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물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었다 생각하며 회개했다. 지금 내가 사는 이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나 또한 거짓 메시아라고 하진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는데 그때 마침 성경에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하셨다. 열 처녀와 같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을 때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울의 서신은 목사님 설교 때 구절구절 불태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적은 없었다.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지독히 생각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아는 사람이 되고싶다는 생각을 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 안에서까지 세상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사람의 본을 보여준 것 같다.

내가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바울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내 모습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다. 더욱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마하나임 성가대 송년모임 (세리토스채플)

예정에 없던 찬양잔치, 웃음과 감동 이어져

마하나임 성가대 송년 파티가 구승환, 신옥 집사님 댁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현옥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주셨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뜻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성가대를 격려 해주셨습니다. 순서를 맡은 윤영섭 총무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구임원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그들이 성가대를 위해서 흘리시고 희생하신 땀과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빨간 종이 백에 선물을 담아 증정하였었습니다. 무슨 선물일까, 궁금하기는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감사의 표현일 뿐이지 그 분들이 성가대를 위해서 바치신 헌신이 작은 선물로 제한되거나 비교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답사의 말씀을 해주신 정 세화 장로님이나 종섭 집사님 모두 지난 한 해의 공로를 모두 다른 임원진들과 성가대원들에게 돌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 성가대를 위해서 봉사해주실 김영기 국장님과 윤영섭 총무님, 그리고 박선우 지휘자님께서 임원으로서 인사와 각오를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기다리던 식사시간인데 식사가 준비가 안 되었다네요. 그래서 성가대답게 일단은 찬양으로 배고픔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용기 있게 지휘자 부부가 테이프를 끊어 주셨습니다. 부부가 모두 찬양의 프로이지만 이날은 감칠맛 나는 목소리로 참석한 사람들의 포만감을 부추겨 배고픔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분들은 하나같이 주옥같은 노래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게스트로 샌디에고에서 올라오신 임훈 선교사님은 사전에 준비를 해 오셨는지는 몰라도 하모니카 연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전혀 계획에 없던 즉흥 노래잔치가 저녁식사

가 늦어진 덕분이었는데 감사하네요. 즉흥적으로 벌어진 장기자랑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노래와 장기를 감상하게 되다니요. 노래 감상으로 포만지수 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감사지수도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대원들 각자가 준비한 선물교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탁상 가득히 쌓인 선물을 번호에 따라서 고르고, 또는 다른 사람이 이미 고른 선물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게임식의 선물교환이었는데 폭소가 연발되는 재미있는 시간



이였습니다. 그때 ‘딩동’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저녁식사가 도착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주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고 좋아서 구 집사님께 살짝 물어보았더니, 그러면 그렇지요. 음식 값이 보통의 경우보다 두 배는 비쌌습니다. 사실 구신옥 집사님께서 알토 파트에서 봉사를 하시지만 남편 집사님께서서는 지난 일 년 동안 마하나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성가대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내년에는 더욱 좋은 찬양으로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날 음식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주문 음식이 아니라 바로 이집 안 주인께서 손수 만드신 된장국이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된장국에 맛도 평범한 듯했는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녁식사 뒤에 이현옥 목사님께서 퀴즈 시간을 진행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을 윤영섭 총무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작년 연말 파티에는 황 종섭 총무님이 지갑을 열어 준비하셨는데 일종의 전통이 된 것 같습니다. 연말 파티 선물을 총무님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말입니다. 마지막 대미는 이 현옥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 베들레헴’ 찬양을 하시는 것으로 장식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재미있고, 맛있었고, 선물도 한 아름, 노래와 장기도 훌륭했고..., 준비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감동

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나누는 마하나임 성가대가 되겠습니다. | 조성운 기자 |

성경퍼즐 정답

< 11월호 >

므	깃	도		여	호	와	
낫		끼		우		스	
밭	세	바			보	디	밭
		라	오	디	게	아	
글	로	바		모		스	가
	이		아	데	미		이
미	스	바			나	오	미
혹		사	데		에	벳	움
		마			훗		

11월호 당첨자: 박경원, 박미자, 박은향, 윤찬임, 조혜리, 조혜숙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도토리국수는 새해에 궁중 떡볶이나 만두(진만두나 군만두) 등의 요리와 함께 상에 올려 새해의 식탁을 만들기 좋고, 작은 모임에서 간단한 점심, 저녁 또는 간식으로 다른 도움 없이 영양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박창신 기자

- 1. 재료**
- 1) 도토리국수 2) 양념장: Balsamic Dressing ½ cup, Miso Dressing ¼ cup, Sesame Oil Dressing ¼ cup, Agave (설탕이나 꿀을 넣어도 좋다) 1 Tbs(큰술) 또는 식성대로 조절한다. 3) 야채: 상추, 방울 토마토, 아보카도, 히키마, 올리브, 피망(빨강, 노랑, 초록) 4) 과일: 사과, 배, 복숭아 5) 고기(없어도 됨): 닭고기 조각들

< 도토리국수 Salad >

- 2. 만드는 법**
- 1) 분량의 도토리 국수를 삶아 체에 받쳐 놓는다. 2) 양념장의 재료를 잘 섞어 준비한다. 3) 야채는 사방 ¼ 인치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4) 과일도 사방 ¼ 인치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5) 1, 3, 4 를 준비된 양념장에 섞어 예쁘고 큰 접시에 담아 상에 올린다.



■ 삶 터에서

"돈벌이 · 비즈니스 아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

<기독교서적센터-강병찬 전도사>

밸리채플 찬양팀으로도 봉사중인 강병찬 전도사는 LA 한인타운에서 기독교서적센터를 20여년째 운영중이다. 기독교서적센터에는 신앙서적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관련제품도 판매한다.

동네책방이 문을 닫은 것은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요즘에는 글로벌 대형 체인서점의 대표격인 반앤노블이나 보더스 등의 대형서점들도 경영난에 허덕이며 매장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용한 시간에 나만의 시간 나만의 사색에 빠지는 대신 인터넷 검색들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름할 겨를도 없이 넘쳐나는 정보를 찾아 남의 생각이 덧칠해진 내용들을 복제, 재생산하기에 바쁜 세월을 견디기엔 참으로 힘든 시절임이 분명하나 의외로 강병찬 전도사는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없어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 백화점은 강전도사에게 돈을 벌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으니 사업걱정에 한숨을 쉴 이유가 없다고 담대하게 말한다.

강병찬 전도사는 세계비전교회 때부터 주일 학교 담당전도사로, 청년부 사역, 찬양사역 등으로 봉사하고 있던 중 최혁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을 만난 후 신앙의 가장 큰 변화를 겪었는데 바로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과 봉사를 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 그간의 크고 작은 실수와 상처들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사역을 하니 상처를 받아야 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사람을 보고 하니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고 달려니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넘치는 기쁨과 감사뿐이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함이 악함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염되었고 흥수 때에 마실



물이 없듯이 넘쳐나는 정보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욱 더 갈급하게 만들고 있다며 세상이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찾아 방향할 때 신앙인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잡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것이 신앙서적이라고 권한다.

실제로 본인도 놀랄 만큼 많은 성도들이 신앙서적을 찾아 읽고 그 모습에 본인도 도전받아 더욱 열심히 책을 선별하여 구매한다고 한다. 바쁜 일상에 성경책을 읽을 시간도 없는 데 언제 신앙서적을 읽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자 주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서점을 찾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본인이 지키고 있는 자리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더해진다고 한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상처와 아픔이 남을 수 있고 악함은 오직 악함만을 전할 뿐, 신앙서적을 통해 어둠을 거두고 밝은 빛으로 다가갈 진심으로 권면한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한 영혼에게 올바른

신앙서적을 통해 회복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강전도사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사재를 다 투자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심으로 달려온 20여년 세월 이후 회는 없다고 1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한다. 주안에 교회 밸리채플에 있는 서점도 이미 교회에 헌납했으며 때마다 성가대에 성가집을 헌납하고 있음은 물론 교회 서점에도 최신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빈책장을 채워주고 있다. 이런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강전도사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계산기를 두들기는 기자의 모습을 부끄럽게 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하는 좋은 신앙서적 한편을 소개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메디칼"이란 제목의 서적으로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그린 내용으로 평신도에게 큰 도전이 될만한 책이라 소개하며 꼭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

시끄럽게 떠드는 잡다한 소리들에 묻혀 밸리채플 여기저기 소리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넘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기 위해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감동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안예교회를 더욱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 도전하는 많은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와 같은 씨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그들은 생각보다 내가 가까이서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주안에 승리하는 하루 하루가 되길 기도한다. 살롬...

| 채은영 기자 |

기독교서적센터 주소: 1027 S. Western Ave., LA, CA, 90006 / 전화: (323) 737-7699, 4526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차 · 매매 · 리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사실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AYCE GOGI
KOREAN BBQ
 대표: David Chun
 7128 Van Nuys Blvd
 Van Nuys, CA 91405
 818-465-3050

■ 미서부 5대 캐년을 찾아서 #3 브라이스. 자이언캐년

섬세함과 우람함 '신묘막측' 하나님 솜씨

어제의 모뉴먼트 밸리와 앤탈롭 캐년의 황홀했던 풍광들을 뒤로한 채 유타주의 북부쪽으로 길을 돌린다.

캐넌이라는 작은 마을을 경유해서 브라이스 시닉드라이브를 따라 약 2시간 정도 올라가면 8000 피트를 넘나드는 고즈넉한 산세 자락에 세계 3대 미의 트레일 중의 하나인 나바호트레일과 퀴즈가든 트레일을 지니고 있는 브라이스 국립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사암층으로 이뤄진 바위산들은 그 오랜 세월동안 빙하와 해빙의 반복과정 속에 연약한 사암층의 일부들이 침식 작용으로 흘러내려 그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침봉들을 만들어 놓았고 그 깎여져 나간 침봉들의 구석구석을 영롱한 빛이 반사되어 황금물결이 흘러 내려가듯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협곡의 스위치백을 따라 하단부까지 내려가면 어느 나무 한 줄기가 완전히 다른 나무 기둥을 뚫고 나와 중간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참으로 신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캐년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이러한 아름다움 또한 창조하신 것에 의심이 없을 뿐더러 이처럼 섬세한 아름다움을 우리의 상상으로 제어할 수 없음을 오히려 감사하다.

캐년을 한 장면도 허투루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지 않는다. 옮기는 발걸음마다 놀러대는 카메라의 셔터 위치마다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연출하는 모습들은 선라이즈와 선셋 타임에 더욱 기교를 한껏 자아낸다. 선라이즈의 희망찬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 산을 오르는 사람도, 흘러가는 저녁 황혼의 도도한 모습을 바라 보려는 사람들도 그들의 얼굴엔 이 모습들을 지켜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임을 가히 숨기지 않는다.

브라이스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시닉드라이브 SR-9 을 따라 서남쪽으로 가다보면 브라이스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층으로 형성된



자이언 국립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원래 물몬교도들에 의해 발견된 곳인데 인디언들의 성지가 있고 그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이곳 역시 사암층으로 형성된 곳이지만 바위산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브라이스 캐년이 여성미를 뽐내는 곳이라면, 자이언은 우람한 남성미를 느끼게하는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자이언 캐년에 진입하는 북쪽 입구를 지나 얼마까지 않으면 약 1.7km 의 터널이 나오는데 캐년의 외벽을 따라 돌며 터널을 관통한다. 1929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완공을 했는데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터널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터널 중간에는 윈도우를 만들어 터널 밖으로 볼수 있게 하였는데 자이언 캐년의 우람한 모습에 탄성을 지르게 된다.

공원의 중간 지점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셔틀을 타고 캐년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시닉드라이브의 종점역에 해당하는 '템플 오브 시나와바' 에서부터는 The Narrow 라는 몰속 트레킹을 즐기는 트레일이 있다. 한겨울에도 잠수복 같은 장비들을 입고 몰속 길을 걸어 협곡 깊숙히 들어가

캐년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 캐년의 벽들은 태고의 역사를 깊이 간직한 듯 곳곳에서 후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듯한 적벽의 메아리가 남아 있다.

자이언에서 무엇보다 인상 깊은 곳은 역시 '엔젤스 랜딩봉'이다. 왕복 4시간 정도의 트레일 코스인데 이름하여 '갈딱고개'를 지나 중간중간

쇠줄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상에 다다르면 이곳의 이름이 왜 '엔젤스 랜딩봉'인가 그 참맛을 느끼게 된다. 넓다란 바위 텃밭에 앉아 산 아래 캐년의 곳곳을 넓어다 보면 평안을 되찾게 되는 기쁨이 회복된다. 가쁜 숨을 몰아치며 올라온 보람이 짧은 고통쯤은 기억 속에서 밀어낸다. 얼마를 쉬었다가 평안을 되찾은 뒤 다시 하산의 발걸음을 옮긴다. 아쉬움이 발걸음을 더디게 하지만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도시의 적막속으로 달려간다.

서부의 5대 캐년 지역을 탐방하며 여호와 그의 신묘막측하심이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아름다움의 진수를, 그리고 그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여행 내내 가슴을 울리게 하였다. 트레일 여정속에서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 한 걸음 한걸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이라 여기니 가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몇시간씩을 트레일속에서 그분과 동행했던 혼자만이 간직한 데이트시간이 그리도 소중한 추억이 수가 없다.



윤성민 집사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 Wilshire Blvd. #265 LA CA
Cell : 818.648.1224





원 장
Hele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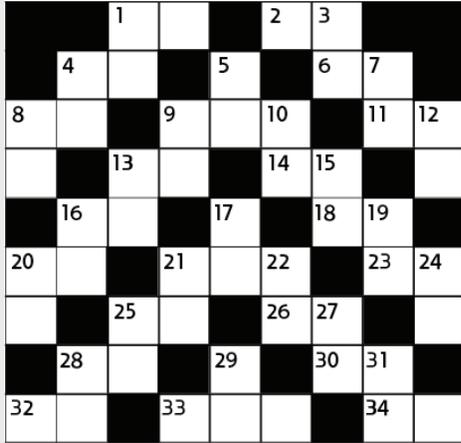
Bus. Hours:
Mon. ~ Sat.
9:00 AM ~ 7:00PM
전화예약 바랍니다.

김 선 영 미 용 실
▶ 6772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Tel (714)228-9001
Cell (562)315-3090

주안에 성경퍼즐

(가로 문제)

1.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이요
2.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로다 (눅 2:14)
4. 다시 살아남(시 23:3)
6.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마 13:55)
9. 12제자 중 하나로 베드로의 형제(요 1:40)
11.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구분할 짐승(마 25:32-33)
13. 수를 헤아림(민 1:2)
14.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점령에 실패했던 가나안의 성 이름(수 8:1-3)
16.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령
18. 어수선하지 않고 아담함(딤후 3:4)
20. 남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딤후 2:1)
21.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행 16:1)
23.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 심부름하는 사람(롬 13:4)
25.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행 9:13)
26. 예루살렘 북쪽의 라헬의 무덤이 있는 성읍(마 2:18)
28.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성전문(행 3:2)
30. 부모와 자식, 부부의 등의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
32.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스마엘의 어머니(창 16:3)
33. 사도행전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행 7:59)
34. 이스라엘 지파와 가족의 어른, 또는 신자의 영적생활의 지도자를 지칭(약 5:14, 출 3:16)



4. 유황불에 멸망한 죄악의 도시(창 19:24-28)
5. 감송 향 뿌리에서 얻은 값진 향료(막 14:3)
7. 턱이나 코 밑에 나는 털. 이를 깎는 것은 수치였다(삼하 10:4)
8. 최초의 낙원(창 2:15)
9. 성별의 의미로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민 27:18, 행 6:6)
10. 라반의 만딸이며 야곱의 첫째 아내(창 29:23)
12. 신자는 세상의 빛이며 ()이다.

13. 하나님의 명령, 특히 주로 율법을 가리키는 말(마 22:36)
15. 복음에서 이탈한 자(벧후 2:1)
16. 한 손으로 두드리는 작은 북(시 150:4)
17. 양의 털,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짜다(잠 31:13)
19. 정치나 행정 에 관한 일이라는 뜻(사 9:6)
20. 예수님의 의심 많은 제자(요 20:25)
21. 바울의 전도로 개종한 헬라인이며, 목회서신 중 한 권의 수신자(갈 2:3)
22. 아브라함의 아버지(창 11:26)
24.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시 145:8)
25. 성의 입구, 재판의 장로이기도 함(창 23:10)
27. 요한이라고도 불린 복음서의 저자(행 15:37)
28. 서울왕의 막내딸이며 다윗의 아내(삼상 14:49)
29.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불렸던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계 3:1)
31. 부족의 우두머리, 성경의 인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다(민 13:2)

(세로 문제)

1. ()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요 17:3)
3.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되게 하려 하심이라(롬 5:10)

<출처: <http://blog.daum.net/limb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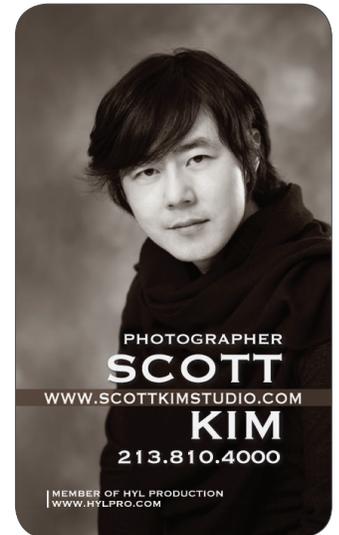
■ 정답을 오려서 이름을 적어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분께 제출해주세요. 다 맞추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교/우/비/즈/니/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담임목사 설교방송 크리스천 헤럴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 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7:45pm~8:30pm 재방송: 매주(토) 1:00pm~1:45pm / 우리방송(AM 1230) 매주 (목) 5:00~5:30am, 10:00~10:30pm /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